

# 한경국립대-두원공대, '2025년 GCN-RISE FESTA' 개최

홍정기 기자 | 승인 2026.02.26 | 4면



한경국립대-두원공대, '2025년 GCN-RISE FESTA' 개막식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. <한경국립대학교 제공>

한경국립대학교와 두원공과대학교는 지난 24일 GCN-RISE 사업 소개 및 성과 공유를 위한 '2025년 GCN-RISE FESTA'를 개최했다.

이 사업은 한경국립대와 두원공대가 컨소시엄으로 수행하는 경기도 혁신중심대학 지원체계(RISE) 사업의 일환이며, 경기도 탄소중립, 바이오에너지, 반도체·소부장 기술 및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농축산업과 첨단산업이 공존하는 경기남북부 탄소중립 산업생태계 조성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.

이번 행사로 두 교육기관은 사업추진력을 강화하고, 지역(안성시, 파주시), 산업계((주)미코, (주)K EC시스템, (주)KCTech), 공공기관(축산환경관리원, 안성상공회의소, 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), 연구소(고등기술연구원, 나노종합기술원, 한국산업기술시험원), 민간단체(안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)와 함께 경기도 탄소중립 산업생태계 및 지역기반 산업 고도화를 위한 다자간 협력 얼라이언스를 구축했다.

윤영만 한경국립대 GCN-RISE사업단장은 “이번 행사는 대학 간 협력을 넘어 지역혁신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대학과 지역의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데 의미가 있다”며 “앞으로 GCN-RISE 사업단은 지역기반 산업 발전과 지속가능한 지역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한편, 한경국립대는 GCN-RISE사업을 통해 경기도 남부와 북부권의 지역기반산업을 연결하고, 지역인재 육성-취·창업-정주여건 조성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 혁신거점대학으로 발돋움할 계획이다.

안성=홍정기 기자 [hjk@kihoilbo.co.kr](mailto:hjk@kihoilbo.co.kr)



홍정기 기자